

집에서도 친환경 급식 먹는다

함평·담양군 “급식 끊겨 힘겨운 농가 돕자”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전달 함평 44개교 3024명·담양 어린이집 제외 초·중·고생 3800여명에 공급

함평군과 담양군이 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재료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진)’로 만들어 학생 가정에 공급한다.

20일 함평군과 담양군에 따르면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친환경 식재료 농가를 돕기 위해 학생가정에 친환경농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총 사업비 1억1300만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 등 지역 44개교 3024명의 학생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한다.

담양군은 어린이집을 제외한 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38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사업비는 1억4000여만원이 투입된다. 어린이

집은 긴급보육 등으로 등원 인원이 많아 급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측의 의견을 반영해 꾸러미를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지원 사업’을 대체한 것으로,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꾸러미는 학교별 학부모 동의 절차를 거쳐 21일부터 순차 배송될 예정이다.

앞서 함평군은 지난 16일 학교 관계자와 식재료 공급업체 및 학부모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급식 공급협의회를 열어 6종과 9종의 꾸러미 품목을 결정했다.

꾸러미는 배미, 햇양파, 방울토마토 등으로 구성됐으며, 모두가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이다.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는 1인당 4

만원 상당의 9종으로 구성된 꾸러미가 제공된다.

학부모 부담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생에게는 2만4000원 상당의 6종 꾸러미가 공급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지역 학생은 물론 농산물 생산 농가와 공급업체 모두 도움이 되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철쭉제·키조개축제 줄줄이 취소 장흥군,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장흥군은 50년간 이어온 군민의 날 행사를 비롯해 제암산 철쭉제, 키조개축제 등 각종 행사를 코로나19로 줄줄이 취소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적으로 펼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장흥군은 군민화합을 위해 지난 1971년부터 매년 5월 개최했던 ‘군민의 날’ 행사를 취소했다. 이 행사는 격년제로 육내·외에서 열리고 있으며, 가장행렬·고싸움·경연행사와 장흥 대표 문화행사인 ‘보림문화제’와 함께 치르고 있다.

전국 철쭉꽃 명소인 제암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9회 제암산 철쭉제’와 안양면 수문리에서 열리는 ‘제16회 키조개 축제’도 취소됐다. 키조개 축제는 특산물 청정해역 갯벌생태 산업특구로 지정돼 그동안 키조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쉽·놀이·예술 공간으로’ 강진만 생태정원으로 개발



강진군은 강진만생태공원 일원을 쉽·놀이·예술이 어우러진 정원 및 노을공원으로 조성한다. <강진군 제공>

최종 보고회...노을공원 조성도

강진만 생태공원이 쉽·놀이·예술이 어우러진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강진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만 융복합 개발 마스터플랜 및 콘텐츠 발굴 용역(이하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강진군과 용역 수행사, 관련 업체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용역 수행사는 강진만 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 중심의

강진만권 개발 방향, 공간 구성, 도입 콘텐츠에 대해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강진만은 갈대를 비롯해 백조, 노을, 갯벌, 탐진강, 가우도 등 각종 경관자원이 풍부한 해역이다. 강진만 생태공원은 1131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남해안 최대 생태 서식지이다.

강진군은 이 같은 경관 자원을 기반으로 생태공원 일대에 정원과 노을경관 조성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이 즉흥적으로 시행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해왔다.

최종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사는 생태공원 일원을

쉽, 놀이, 예술이 어우러진 정원으로 조성해 누구나 친환경적 생태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가꿔나갈 것을 제안했다. 생태공원 맞은편 구역을 장기계획으로 노을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권유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강진역을 비롯해 강진만 생태공원 일원을 서남권 관광 허브로 육성하겠다”며 “그동안 숨겨져 있던 뛰어난 자연경관을 전면에 내세워 강진만권역을 500만 관광객 유치 거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 발암 위험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확대

군, 12억9000만원 투입 오는 30일까지 신청 접수

장성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주민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장성군은 올해 12억9000만원을 투입해 총 402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할 계획이다. 지난달 1차 지원신청을 받아 224동의 슬레이트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차 신청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

터에 하면 된다. 신청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이 우선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주택 가구의 경우 1개동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가구는 최대 172만원, 취약계층 지방개발 가구는 최대 427만원이다. 초과되는 사업비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에만 한정됐던 슬레이트 처리 대상을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으로 확대하고, 사업량도 지난해보다 150여 동을 늘렸다”면서 “많은 군민이 신청해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군, 밥맛 좋은 조생종 ‘조명1호’ 첫 모내기

8월 말 30ha 규모 수확·출하

화순군은 올해 첫 모내기 지난 18일 사평면 내리 김병남씨 1ha에 ‘조명1호’를 이앙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명1호는 밥맛이 좋고 쓰러짐과 수발아에 강한 품종으로 전남농업기술원이 지난 2015년 육성해 보급한 조생종 품종이다. 조생종벼 조기재배는 천운농협과 계약재배한 35농가가 사평면·동면 일원 30ha 규모이며, 8월 말 수확·출하할 예정이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벼 조기재배는 수확 시기를 앞당겨 태풍과 병해충 등 피해를 줄이고, 농작업의 적절한 분배로 농가 경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농약 안전 사용과 생육 초기 저온 피해 대비 등 현장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화순군 사평면 내리 김병남씨 논에서 올해 화순지역 첫 모내기를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